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들려주는 닭 이야기

농경민 아내와 유목민 남편의 닭 사육기

작년에 우리는 닭 일곱 마리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농경민인 아내와 유목민인 나의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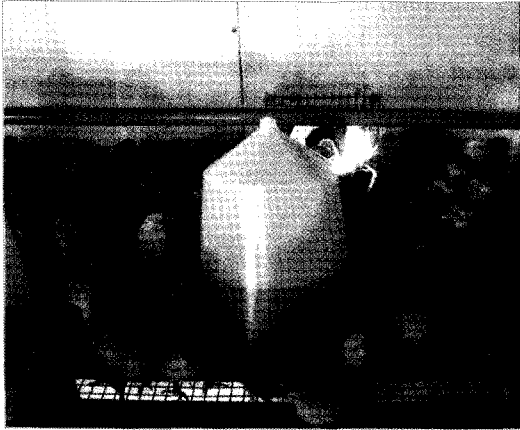
자그마한 채마밭을 일구고 여러 가지 꽃들을 심고 가꾸는 것을 아내는 즐긴다. 그러니 씨앗 뿌린 흙을 헤집고 식물들을 쪼아 먹는 닭들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닐 것이다. 나 또한 좁은 공간에 가두어 두려고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닭을 풀어 놓은 날이면 둘이 찌릿찌릿 눈을 흘겨가며 닭을 가두어라, 아니 닭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말다툼을 하곤 한다.

어린 시절의 시골 풍경을 떠올리면 마당에 채소도 있지만 닭을 풀어놓고 암탉이 병아리를 달고 다니면서 먹이를 쪼아 먹는 모습이 제일 정겨웠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덧 같이 공존하던 공간을 채소밭과 농작물을 영망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좁은 닭장에 가두거나 아예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양계장에서 나오는 손쉽고 값싼 닭을 구입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모든 농촌 사람들이 집에서 닭을 키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기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방식대로 닭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가령 아내처럼 닭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채소에 애착이 더 있는 사람에게는 풀어놓고 키우는 닭이 악몽일 수 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운동을 많이 한 토종닭보



나재천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병아리



관상닭

다 육질이 부드러운 일반 육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자유라도 만끽하며 닭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닭들은 채소를 쪄아 먹었다. 그러면 집에서는 휘이~ 하며 참새 쫓듯이 닭들을 채소가 아닌 풀밭으로 내보냈다. 성가신 일이었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물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아내도 닭들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닭들의 행동과 모양새를 하나하나 관찰해서 그에 맞는 별명을 붙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기 시작한 것도 아내이다. 다만 자신이 기른 채소에 대한 애착도 포기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동안만이라는 다짐을 하고 닭을 풀어 놓는다.

하지만 늘 그들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눈 깜짝할 사이에 닭들은 채소밭을 넘나들며 탐스럽게 자란 배추와 아욱을 쪄다. 아내의 작은 탄식이 이어지고 나는 눈치를 보며 닭을 쫓는다.

아내의 특징은 예전에 그랬던 것까지 들추어 닭들의 만행을 과대포장하는 것이다. 씨앗도 헤집어서 엉뚱한 곳에서 발아되게 한다든지, 막 나오고 있는 새싹을 잘라먹어 씨를 다시 뿌리게 만든다고 말이다.

아내는 자신이 농경민이고 나는 유목민이란단. 굳이 역사를 들추거나 미국의 서부개척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집의 휴일 풍경은 농경민과 유목민의 다툼이 재현되는 현상이다.

그것이 나는 싫지 않다. 두 사람이 살기에 너무 넓은 공간에서 그러한 소리와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아내는 또 밍지 않게 눈을 흘기며 동의 할 것이다.

언제부터였는가. 조금의 수확량이라도 늘리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제초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그런 식물들이 담당해왔던 좋은 일들이 묻혀 버렸다. 풀을 먹던 소와 마당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닭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제초제와 함께 척박해져가는 땅처럼 마음도 척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가족 간의 대화 단절로 인한 상실감에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를 보거나 이러한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는 언론을 보고서 화들짝 놀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보니 소통의 부재는 타 가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뒤늦게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고 이야기는 걸돈다. 그럼 그렇지 하며 서로에게 실망만 안고 돌아서는 것이 현실이다.

대화의 기술이니, 대화법이니 하는 용어와 책들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물론 대화할 때 어휘선택이라든지 어투가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있으려면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돌발적인 상황을 만드는 동물들이야말로 사건제조에 지대한 몫을 한다.

내가 닭들을 위해 아내에게 하루의 조금을 양보 받아 닭을 풀어 놓는 것도, 강아지 때 들여온 우리 개, 수니가 닭들과 노려보며 대치하는 현장도 밥상위의 어떤 반찬보다도 맛있는 먹을거리이다.

풀어놓은 닭들을 보며 모인 동네 어른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안에서 하기에 안성맞춤인 수다이다. 어떤 이들은 “닭들이 아주 고운 것이 꼭 화초 닭이네” 하는 반면, “고놈, 참 맛나게 생겼구나.” 하시는 말들을 흉내내며 어느덧 심리학적인 이론까지 읊어대는 아내의 조잘거림이 줄음을 달아나게 만든다.

내가 관계하는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과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을 챙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다. 내가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이다. 